

동네약국서 '타미플루' 투약 받으세요

광주 586곳 전남 777곳 정부 비축분 비치...처방전 있으면 무료 제공

“처방전만 있으면 동네 약국 어디에서나 ‘타미플루’를 받을 수 있어요.”

30일 광주와 전남의 모든 약국에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가 비치됐다.

거점 약국이 아닌 동네의 모든 약국이 처방전만 있으면 타미플루를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네 약국에서는 아직까지 타미플루 처방 환자를 단 한명도 받지 못한 곳도 있으며, 대형약국의 경우는 이날 하루 3~4명 정도의 환자께 타미플루를 지

급하는 등 차분한 모습이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는 586곳의 약국에 각 50명분씩 정부비축분 타미플루가 무료로 배포됐다. 전남도 777곳의 약국에 타미플루를 배정했으나 섬 지역이 많아 일부 지역에 배부가 지연되고 있다.

지금까지 타미플루 처방은 거점병원과 일반 병·의원에서 모두 가능했다. 하지만 타미플루 판매처가 거점 약국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집 앞 약국을 놔두고 수백km, 심지어는 수km 떨어진 거점약국을 찾아야

했다. 특히 이날부터 배부되는 타미플루는 정부비축분으로 환자들에게 무료로 투약되기 때문에 환자들이 다소 몰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특이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모든 약국에서 처방과 투약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착각한 환자나 기존에 3만5천원인 타미플루(5일분)가 무료인 점을 노려, 처방전 없이 무조건 치료제를 요구하는 이들이 더러 있었다. 광주시 서구 농성동 B 약국의 경우는 “약이 있느냐”는 문의 전화는 10여 건이 넘었으나 예상과

달리 타미플루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한 대형약국에도 4명의 환자가 타미플루를 투약받는 등 하루 평균 규모 큰 약국은 2~4명, 소규모 약국은 아예 환자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광주지역에는 29일부터 타미플루가 공급돼 20일 현재 기존 거점 약국 41곳을 제외한 586곳의 일반 약국에 총 2만9천300명분이 배포됐다. 전남지역은 시간당 지역은 배부를 대부분 마쳤으나 섬지역은 택배나 군

청 직원들이 직접 배로 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J약국 약사는 “무료인데다 집 앞 약국에서도 타미플루를 구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만큼 대부분의 약사들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 동이 날 것으로 생각했으나 예상이 빗나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사회는 이날 광주지역 모든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신종플루 의심환자는 검사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학원가 신종플루 ‘사각지대’ 수능 앞두고 학생들 복새통 체계적 관리 안돼 감염 위험

광주지역 5천곳중 45곳만 휴원

지난 29일 밤 광주시 동구 장동과 봉선대 일대 학원이 골목길.

밤 9시가 넘어서자 학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을 기다리는 학부모들의 차량 행렬로 복새통을 이뤘다. 학원에서 나오는 학생들 중에 간간히 기침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은 드물었다.

광주 동구의 한 대형 입시학원도 수능을 2주앞에 앞두고 막바지 공부에 전념하는 학생들도 복새통이다. 이 학원 관계자는 “신종플루 때문에 수강 학생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학원 앞에서 만난 고2 아들들 둔 학부모 서모(여·48)씨는 “신종플루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지 않아 성적이 떨어지는 게 더 불안하다”면서 “아이에게 손을 자주 씻도록 하고 있고, 기침 등 이상이 없는 지 매일 체크하는 것으로 불안을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 오모(고1)양도 “신종플루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느냐”며 “친구들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학원에 나온다”고 말했다. 신종플루가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몰리는 학원이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원은 주 감염층인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도 발원점사기를 비롯한 예방

장비 등이 제대로 비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염 우려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원 공부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날마다 학원가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과 학원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광주지역 학원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해 휴원조치가 내려진 곳은 모두 45곳에 이른다. 광주지역의 학원은 5천여곳이다.

휴원학원은 확진환자가 자체적으로 발생했거나 학교내 확진환자와 같은 반 학생 등이 다녔던 곳으로, 신종플루 확진 검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신종플루가 확산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특히 확진환자가 발생하더라도 학원 전체 휴원이 아닌 해당 수업만 부분적으로 휴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돈 벌이에만 급급해 신종플루 예방 조치를 외면하고 있는 학원 운영 형태도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 모 학원 관계자는 “기침 등 신종플루 의심 증세만으로 학생을 학원에 못나오게 하거나 휴원 조치를 할 수는 없다”면서 “최근 기침을 하는 학생이 있어 당분간 학원에 나오지 말 것을 권유했다가, 해당 학생의 부

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 다른 학원 관계자는 “학원생이 들어올 것으로 우려했는데, 오히려 휴교(휴업)를 한 학교의 학생들이 수업 결손을 보충하고자 학원을 찾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도 학원가를 대상으로 신종플루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신종플루가 발생하면 해당 학교와 학생을 학원측에 통보하

고, 신종플루 확진 학생이 다녔던 학원은 휴원 조치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긴 학원은 벌점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낙안읍성의 겨울 채비

가을걷이가 끝나고 앞 마당에 같이 익어갈 즈음 겨울을 맞으려는 농심(農心)은 바쁘기만 하다. 30일 순천시 낙안면 낙안읍성 민속마을 주민들이 초가 지붕에 이엉을 엮는 등 겨울나기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52분 / 해질 17시 39분 / 달돋이 15시 52분 / 달질 04시 02분

안개 주의 저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으며 지역에 따라 안개 끼는 곳도 있겠다.

구분	기온	파고
광주	흐림	13/23℃
목포	흐림	15/21℃
여수	흐림	16/21℃
완도	흐림	10/23℃
구례	흐림	10/23℃
해남	흐림	12/22℃
장흥	흐림	12/22℃
고흥	흐림	13/23℃
순천	흐림	13/23℃
영암	흐림	13/23℃
진도	흐림	14/22℃
전주	흐리고 비	14/22℃
남원	흐림	10/22℃
육산도	흐림	16/20℃

자외선지수: 낮(1.0~2.0) / 식중독지수: 낮(1.0~2.0) / 뇌졸중지수: 낮(1.0~2.0)

기상예보: 맑음 / 주의 / 낮음

◇주간 날씨: 1(일) 구름 / 2(월) 구름 / 3(화) 맑음 / 4(수) 맑음 / 5(목) 맑음 / 6(금) 맑음

최저/최고: 11/14 / 4/8 / 2/12 / 5/16 / 9/19 / 10/21

휴일 비온후 초겨울 날씨

이번 휴일 광주·전남에 가을비가 내린 뒤 기온이 푹 떨어져 내주 초에 초겨울 날씨가 엄습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31일 구름이 많겠으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고 30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16도, 낮 최고기온은 21도~24도의 분포가 예상된다. 휴일인 다음달 1일에는 천둥·번개와 함께 돌풍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비가 그치면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는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추위일 전망이다. 다음달 1일 광주·전남의 낮 최고기온은 14도~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지만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 사이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푹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출시에는 반드시 두툼한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한국전쟁 광주지역 민간인희생자 첫 합동위령제

한국전쟁 당시 광주지역에서 희생당한 민간인들을 위한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광주유족회”는 30일 광주시 광산구민회관에서 위령제를 갖고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랬다. 이번 위령제는 지난 2008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된 결과를 발표

한 이후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진실·화해위와 경찰청, 광주시의회, 광산구청,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문화제, 고유제(告由祭), 추모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정민 광주유족회장은 추도사에서 “우리는 죄의협력자, 빨치산 협조자 등으로 몰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신 부모, 형제·자매들

의 고혼을 달래고, 고인들의 명예 회복 사실을 공유하고자 모였다”고 말했다. ‘광주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1951년 함평과 장성으로 이어지는 빨치산 이동경로에 대한 경찰의 공비토벌 과정에서 광산구 평동면(4명), 호지면(5명), 본량면(4명), 삼도면(2명), 대촌면(1명) 등에서 민간인 16명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건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어촌 교육 죽이는 ‘교원 정원 변경’ 철회하라”

전남도교육위원회 결의문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사수를 기준으로 한 2010년도 교원(교사) 정원 변경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위원회(의장 한이춘)는 29일 “농산어촌 교육을 말살하는 학

교육 말살하는 학생수 기준 교원정원 정책 철회 ▲농산어촌 교육특별법 조속히 제정 ▲부족한 교원 정원 추가 배정 ▲법적 교원 정원 확보 등 5개안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이춘 전남도교육위 의장은 “이번 교원정원 방식 변경은 결국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전국 시·도 교육위원들과 연계해 잘못된 교원 배정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 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협의회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교과부가 교육법에서 규정한 ‘학급수’가 아닌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2010년도 교원을 배정함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농산촌 지역의 교원 수가 줄고, 이는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학생수 대비 교원 배정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나원침 (7941) 김중두

광주 인권테마역사 개관 1주년 콘서트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와 사단법인 실로암 사람들(대표 김용목)은 30일 광주지하철 마북동역사에서 ‘인권테마역사’ 개관 1주년 기념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콘서트는 그동안 인권테마역사를 다녔던 단체와 다문화가정, 지하철 승객 등

지역 음악가들 참여 이주여성 사진전도

을 대상으로 지역 음악가들이 참여한 ‘작은 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또 광주·전남지역 이주여성들을 생활상을 담은 ‘인자 우리 식구’란 제목의 이주여성 사진전도 함께 개최했다.

인권위는 광주시와 지난해 10월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인권역사관을 조성했다. 그동안 인권역사에는 광주·전남의 초·중·고생 1천165명(23개 단체)이 방문해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체험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주 자율형 공립고 상일여고 지정될 듯

광주지역에서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자율형 공립고로 상일여고가 지정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자율고 지정심의위원회의를 열고 신청 2개교 가운데 상일여고로 결정, 교육과학기술부에 지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음달 초에 최종 결정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추천한 대로 지정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

광주 중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문 열어

광주에 중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이 다음 달 2일 문을 연다. 광주시교육청은 30일 “내년 3월 폐교를 앞둔 진명중학교를 대체할 ‘명문중학교’가 다음 달 2일 남구 월산동에서 개교식을 갖고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

순천시시장 업무추진비 광주지법 공개 판결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병하)는 30일 시민단체인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47) 운영위원장이 노관규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법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안에 사본·복제물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의 양이 많더라도 공개 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경찰이 절도 은폐 연쇄절도 불러

○전남 한 경찰 지구대가 절도 사건을 은폐해 연쇄 절도의 발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 ○경찰에 따르면 당시 B씨의 주유소 절도로 4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도 파출소 근무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데다 나주경찰에 상황보고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사건은 은폐했다가 연쇄 절도도 연쇄. ○경찰은 B씨로부터 나주의 당구장과 주유소, 오락실 등 10곳에 침입해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사실을 확보하고서도 주유소 절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 /나주=최승철기자 srchoi@